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다음은 소리 A~D의 주파수와 크기, 청각 특성을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

소리	A	B	C	D
주파수(Hz)	150	1,000	1,500	2,000
소리 크기(dB)	30	30	63	55
최소가청강도(dB)	38	8	12	2
차폐 문턱값(dB)	38	20	38	6

- ①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있겠군.
- ②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 ③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겠군.
- ④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
- ⑤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8월 1회 한글

영어로는 놓친다.

죽어버렸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憤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유예 불평하시더니, 이화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하고 분을 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하에 무익하음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 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입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희하사 즉일 ⑦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이화 대희하여 사온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찌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깃든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하나 네가 처치를 잘 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꾀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꾀 빨아 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 하라 하고, 대톱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올 것이니 억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⑨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맷어 둘러치고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A]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 온가 하나이다.”  $\Rightarrow$  이리 나무 짜르면 무리도 라죽지고 나죽죽이 원이 대소 왈, 그러니까 베지마라.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매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 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둑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빌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함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며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⑩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B]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Rightarrow$  이리 쿠너썩임에 이제 그을 수령 안락겠다고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Rightarrow$  조 래아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 작자 미상, 『이화전』 -

당면한 문제

19번 문제

18번

문제

##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화는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해칠 수 없다고 여기고 여산에 부임했다.
- ② 이화는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 ③ 모든 군사는 이화의 호령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다.
- ④ 모든 군사는 은행나무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 ⑤ ~~이화는 백발 노옹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 이화가 아니라 (도를 금사라 백성.)

즉히 주의성

## 19.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화는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을 통해 해소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을 통해 시도한다.
- ② 상은 황폐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 행하고, 이화는 자신에 대한 ~~백성의 선함을 되찾고~~ ㉡을 행한다.
- ③ 이화의 부모에게 ㉠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화에게 ㉡은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군사들은 ㉡을 계기로 ~~이화를 외면하게 되고~~, 백성은 ㉡을 근거로 하여 이화를 신뢰하게 된다.
- ⑤ 이화는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을 행하고, ㉠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다.

정답과 표시해줌.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화* → 정답과 표시

- ① [A]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이 자신들과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B]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B]에서는 자신들과 상대방이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상대방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방의 지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스스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1. &lt;보기&gt;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와 지문과 연결하여 or 문제를 아래에서 바로 연결.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 ① '본국'의 '사변을 제어하'겠다고 말하며 국가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자신을 '베고자 하'는 이화에게 '좋은 꾀'를 알려 주는 여백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잡귀'를 잡는 것에 관해 이화가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전기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여백에게 '여우를 잡'는 방법은 듣게 되나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수받지 못한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여백의 조언을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혼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못벗어남. 임여우 못죽여서 그림. ⇒ 보기랑 크게 상충 X  
기운이랑 맞지 않음.

⇒ 예제인 만큼 둘 사이에 일정히 놓게 표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로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지어 수필이 매우 어렵게 나온*

(가)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골나무에는 꿀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짐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골나무에는 꿀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유사한 통사구조  
의 빙복  
22면 간접

여기서 대충 눈치를 해야 함.  
아 사물의 고기는 치마 정해져 있지 않음.  
사람이 여기에 따라 잘라갈 수 있으면 말하고 싶은 거야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득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면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멍해져서  
끌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나） 수필 통해 기본: 이향재 힘적 사고 (A형과 B형과 구별해석하는)  
내가 읽은 그대를 떠나 해봉.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①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은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의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①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  
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우상사 사양(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  
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둑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양이  
언젠가 ②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 주었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중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  
라네. ③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제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  
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그래서 소자  
(邵子)는 ‘베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흥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④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시간이 되면 24-11 ‘잊음을 높함’ 0.△ 꿈시 해석 - 채제공, 「용연사기」 -  
1번이라도 잊어버렸을 때는 높은.

여기까지  
잊었을 때 양이 아니  
했을 때마다  
아래 집을 짓는다  
줄고 몸을 걸 수용하니  
자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인  
bun  
bun식은  
여기서는  
기운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무관한 빛날세지가 어려워 때문에 없음. → 멀어짐.
-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축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이주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애송에 봄날에 아비이와는 정서가 없기에 3번 째고 넘겨야함.
-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24. 수능

이름을 찾는 뜻

똑같이

모는 안그려도 0, 8 놀라기 이해해볼것

## 국어 영역

9

의 수필을 꼬로 나라내면	형태(사물 형태)	인간의 래로
래나무 들판 어찌여는	작음	코세여김
진나라, 흥나라 낙하늘	름	작게여김
웅연사	작음	사양: 작게여김, 3술이: 크게여김
마음	작음	크게여김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난이도 중하

<보기>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빛) 읊(가) 읊(나) 읊(다) 읊(다) 이 원래는

①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과거를 힘겨웠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② (가)에서는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③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득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④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나)에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대적 치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눈이 부신 속성을 태양.

▶ 보기 와의 관계에서는 흔히 입지 않지만,  
기운내용으로 파악해야 하는 문제.

25. ㉠~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②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③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④ ㉣: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양'에게 권유하는 진술이다.

⑤ ㉤: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사양'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다.

◀ 한정적 진술주의!! : 사양에게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겠지

↓  
이름이 30 바꿔진 모음.

9 20

26.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① (가)에서 화자는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들이 당연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걸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②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 ~~다불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③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다)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다)에서 글쓴이는 '름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⑤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꾀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꾀꼬리 아니로되 ①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달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②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볕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되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28번  
29번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단거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나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륙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김 이에서 더할소냐

(중략)

청계변에 복성 꽂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 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냐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충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홍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흘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 정관: 솔.

(나) 그림 8-3은 그림 8-2의 예상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⑩ 공명을 헤아리니 정풍이 만이도나  
동문에 패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뫼에 염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 짤자 미상 -

\* 동물에 패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 엎고喟망: 높은 곳에 올라 멀리 곳을 바라보는 것

\* 습화퀴즈 : 자연에 속을 헤아리며 살다가 자연에 퀴의하는 거

(다)

④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풍월이 벗이 되어 ⑤ 백운(白雲)에 누웠으니  
백구(白鷗)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 채현 「설무가」 -

E! : 꽁꽁 얼때, 깨울 시 불면서 소리하나? (ex: 라 임고 아는가지?)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념적 사유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 ③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9. 12. 4) 01호.

답: 밀줄만 보지 않고 그 뒤 아래 2줄 깊까지 읽고 물색으로 짜상.

28) ①~④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의 차세학의 파악

① ㉠: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범주학으로. 자연경물이 아니라

② ㉡: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과 관련지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③ ㉢: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이 드러난다.

④ ㉣: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속적 성취의 추구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⑤ ㉤: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공간에 있음이 드러난다.

→ (영옥)이라는 간어를 모르더라도 일간  $\oplus$  치고 넘겨라  
네네가 '첨보는 간어'가 징집 편성의 결정적 키가 되도록  
물제 절대 안녕. 물화로 맥락으로 라 알 수 있게 해주면가  
Dr. 저 당시 애비였다.

29. ①과 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짧고 정밀한 문장이나 단어

① ⓐ는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다.

② ⓐ는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고, ⓑ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③ ⓐ는 화자가 계절이 변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고, ⓑ는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다.

④ ⓐ는 화자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⑤ ⓐ는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고, ⓑ는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대상이다.



“왜 그러시죠? …… 저두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나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 하고 원석이도 발을 멈추며 섰다.

작업인용 ← “서울루? 서울루 가서 뭘 하려우?”

“무얼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떼기라도 부쳐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마는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쑥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

“글쎄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름어름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나이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이네 네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면 친구들에게 낮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

- 염상섭, 「두 출발」 -

\*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진 막대기.

31.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전모를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③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특정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관찰자의 시선으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 양적영감  
간접창작

팁: ①, ②, ③ 가 누구인지 써놓고 문제풀기.

실제 시험기에는 지문과 문제가 서울 다른 페이지에 있어서 뒤죽박죽하기 불편함

32. ①~⑤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④는 ⑤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④를 대신하여 마당으로 나온다.
- ② ④는 불안한 상황에 처한 ④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④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 ③ ④는 ⑤가 ④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을 ④를 표출한다.
- ④ ④는 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④와 동행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 ⑤ ④는 ⑤가 제안한 바를 주용하여 ⑤를 주재소로 데리고 간다. 거칠하고 들다 데리고 갑.

소설에서

기; 만약에 1~5까지 라 맞는 소리인가 같을 때는  
지문의 세부사항 및 가로 놓친 것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라세 불운가서  
빠르게 확인, 아니면 풍자로 빙거풀기

다시보자. (여기, 그때 까지만 다시 고민해보기)  
①~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래기 당시 스립 → 다시 고민할 때 극한적인 단어들  
(모두, 전부, 절대, 아무도, ...) 중심으로  
다시 체크해보기.

33. ①~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② ②: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②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
- ③ ③: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 보면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보여 준다.
- ④ ④: 대화에서 언급된 대상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⑤ ⑤: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특정 사물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낸다.

복음을 놓쳤으면 아무리 둘여다 봐도 맞는 소리 같음.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에서 A라고 말하고 선지에서는 약간 뉘앙스를 바꿔  
법국장을 놓았음 → 정답률 50% 고난이도 문제

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엄격한 상하 관계에 기반한 신분 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이나,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재현하며,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훈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① ‘뚱그란 두 눈을 훼嵬 내젓’은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꼬깔 침봉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② ‘그까짓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훈들리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③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가 억압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겠군. “여전히 양적영감이 노비가 되었다는

④ ‘쫓겨나게’ 된 원석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사람답게 살아야?’ 했을 때 이상한게 하고 싶은 4,5번 보고 와는  
행동을.

⑤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적영감과 달리, ‘굽실’대며 ‘쇤네’라고까지 하는 꼬깔 침봉의 모습에서, 위 세대 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